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경 빨리 통과해야 고용문제에 도움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진이 심화된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부총리가 반론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3월을 기준으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했다.

김 부총리는 “2~3월 고용 부진은 작년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서는 정치 이슈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이 빠르게 심의에 들어가 통과돼야 고용문제에 도움이 된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예코세대의 추가 실업 14만명을 방지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등을 포함한 지역 대책도 신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책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금호타이어와 중견 조선사 등 현안 기업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생존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성동조선해양은 법인 관리 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TX 조선해양은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져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지속점검하겠다.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은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정부는 앞서 말한 원칙에 입각해 GM측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다”며 “GM 협력업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노사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논의 주제인 혁신성장 관련 방안과 관련, “정부는 그간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친환경, 태안광 등 민간투자사업도 증가하는 등 사업 성과가 차곡차곡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도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대응의 핵심은 과학 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의 전반적인 혁신에 있는데 아직 규제개혁과 사람에 대한 제도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취업 후학습 확산과 함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인재양성의 구조적인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지역 우수제품업체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전형구)은 16일 우수조달물품 친환경세라믹코팅제 생산업체인 티오켄(주)(대표 노창섭)을 방문해 제조과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티오켄(주)의 ‘친환경세라믹코팅제’는 나노 사이즈의 무기소재와 복합실란을 반응시켜 제조한 친환경코팅제로써, 콘크리트 및 철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재의 공극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부착력이 우수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난 기능성 코팅제이다.

전형구 청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4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2018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4.25 ~ 4.27)’에 전북지역 조달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수호 기자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 업

농협중앙회, 농촌일손돕기 봄 조성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봄을 조성하기 위해 16일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 업’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가소득 5천만원의 시작’이라는 부제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농업 협 일손돕기 지원봉사 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 5만여 명이 참여하여 농업인의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졌다.

또한 결의문 낭독, 풍년 농사 지원 결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전국 951개 농 축협에 220억 상당의 농기계 전달식을 갖고 대규모 일손돕기를 펼쳤다.

한편, 전북 익산시 삼기면 일원에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민주당회당 대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전북노조 위원장과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

석했다. 이날 서울·인천·전주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삼기면 대표 작목인 고구마 종순 정식작업을 통해 4월의 바쁜 농촌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고구마 종순 정식작업장에서 이날 전달한 레이저 균평기를 시연했다.

시연 중 “전국 농협에 전달한 농기계가 우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되어 풍년농사 이루시라는 바람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원활한 영농인력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70만명의 영농인력을 무료로 중개·알선 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농작업이 가능한 ‘영농작업반’ 육성과 농작업대행 면적확대 등 농업 경영비 절감노력에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호 기자



한전 익산,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봉사

한국전력 익산지사(지사장 문태영, 전력노조 위원장 김호기)는 지난 14일, 익산 중앙체육 공원에서 펼쳐진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현장을 찾아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눴다.

“하루 되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8,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 마라톤 대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30여 한전 봉사단원들은 물티슈와 편의용품 등을 나눠 주며, 도전에 나

선 참가자들을 응원하면서 장애우 및 노약자들이 행사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전 직원들의 수고와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문태영 지사장은 “최상의 전력서비스 제공은 물론 앞으로도 지역 문화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제2금융권 대출도 ‘간간’

금융당국, 7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 시범 운영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먼저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대출 조건 등이 현행보다 더 간간해질 수밖에 없다.

시범운영 실시 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출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적격대출 공급을 기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권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여신사 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도 나선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한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 문금융회사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기사재보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